



미래의 공사 2025 세계양궁·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1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장난감 활로 과녁 맞히기 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국가산단 노동자 사망사고 언제까지

### 여수산단 11명 등 전국서 5년간 93명 사망·173명 부상 하도급 만연·형식적인 점검·안전시설 설치 미비 등 원인

여수, 광양, 영암 등 전남을 비롯한 '국가 산업단지'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자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망 사고를 내고, 올해 들어서는 영암 대불산단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고사하는 등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여 동안 전국 국가산단에서는 총 9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10건이었으며, 173명(사망 93명, 부상 80명)의 노동자가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액은 1186억원이었다.

평균으로 계산하면 연간 24.3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39.3명이 인명피해를 입고, 그 중 20.5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여수산단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곳으로 꼽혔다.

여수산단에서는 2021년 5건(사망 6명), 2022년 4건(5명), 2023년 2건(0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해 최근 5년 사이 11명이 숨졌다. 이는 울산 미포산단(14명), 경남 창원산단(12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며, 울산 온산산단(10명)을 웃도는 수치였다.

광양산단에서는 2021년 1건(사망 1명), 2022년 2건(2명), 2023년 1건(1명), 2024년 4건(4명), 2025년 1건(1명)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 14일에는 광양산단 내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외벽의 대형 배관(덕트)을 밟고 올라가 배관 철거 작업을 하다 배관이 붕괴돼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영암 대불산단에서는 올해 들어 사망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발생하고 있다.

대불산단에서는 2022년 1건(사망 1명), 2023년 2건(2명), 2025년 3건(3명) 등 중대사고가 났다. 지난 1월 17일 40대 노동자가 지붕 환풍기 교체작업 중 플라스틱 환기장이 깨지면서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고, 하루 뒤인 18일 지붕개량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채광장이 부서지며 4.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달 7일에는 대불산단 내 공장에

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밟고 있던 채광장(선라이트)이 깨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조사 중이거나 5일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되는 등을 이유로 공단에서 집계되지 않은 사망 사고 사례도 있어 실제 피해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이 제공한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불산단에서는 지난 3월 8일 물품 운반 차량과 벽 사이에 작업자가 끼어 숨지고, 같은 달 22일 용접 작업자가 화재로 사망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크레인 클램프 이탈 사고로 작업자가 자재에 깔려 숨졌으며, 4월 16일 태양광 수리 작업자가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등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일각에서는 하도급 등이 만연한 데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점, 안전 시설 설치율이 미비한 점 등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사망사고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국가산단은 한국 산업의 심장이지만 최근 5년간 110건의 중대사고가 이어진 건 구조적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산업재해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산단 관리기관은 화학사고뿐 아니라 추락·협착 같은 기본 안전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점검체계를 고도화하며 안전투자를 확대해 더 이상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칼 빼들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예방 영상 출연

### 경찰, 전담인력 대폭 확대 중국 등 해외 공조 강화 17일부터 24시간 상담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을 24시간 진행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핵심은 24시간 상담"이라며 "오는 17일(월) 24시간(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이달 말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통합대응단은 전국 보이스피싱 신고 사례를 분석해 신종 범행 수법을 전파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신고대응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협력팀 등으로 구성된다.

통합대응단에는 범죄분석인력 50명과 피해상담인력 25명 등 137명이 상주하며,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 규모(43명)의 3배 수준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 많은 중국, 신성 보이스피싱 조직 거점으로 부상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공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과 중국 후난성 공안청이 2008년 업무협약을 맺고 20년 가까이 이어온 국제 치안 협력 모델을 확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의 경찰과) 수사 상황을 공유해 현지 거점을 직접 타격하고 범죄자 송환이나 범죄수익 몰수 등에 대한 협력 강화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박성주(사진)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한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을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영상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 뿐만 아니라, TV 공익광고·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영화관 등에 한 달 동안 송출한다. 정부기관·금융회사·통신사 등 협력 채널을 통해 전방위 홍보·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엔 공개된 영상 중 1편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해 검사를 상징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연출했다. 누구나 언제든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이밖에 4개의 영상에는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재현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2년 2만1832건, 2023년 1만8902건으로 감소했다가 작년 2만839건으로 되려 증가했다.

피해액도 2021년 7744억원에서 2023년 4472억원으로 줄었다가 작년 854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 피해액은 7766억원이다. 작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25.3% 늘었고 피해액은 약 2배로 늘었다. /유연재 기자 yjyou@연합뉴스

# 9년만에...한반도 '여름철 태풍' 없었다

올해는 9년만에 한반도에 여름철 태풍이 하나도 상륙하지 않은 해로 남게 됐다.

다만 가을부터는 기압 배치가 달라지면서 한반도가 '태풍 길목'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2003년 '매미', 2007년 '나리', 2016년 '차바', 2022년 '힌남노' 등 역대급 피해를 남긴 태풍 대부분 가을 태풍이었다는 점 등에서 '가을 태풍'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6-8월)에는 모두 13개의 태풍이 발생했으며, 모두 중국, 베트남, 대만, 일본 쪽으로 지나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

우리나라가 여름철 태풍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 30년동안 여름철에는 한반도에 평균 2.5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

쳤다.

기상청은 여름 내내 우리나라 상공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력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로 파고들 틈새를 찾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상청은 가을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한반도가 태풍 길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도 가량 높아진 상태로 태풍 세력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다. 태풍이 남쪽에서 형성돼 올라올 때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태풍 세력이 유지되거나 좀 더 세 태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식수원' 순천 주암호 조류경보 확대

물에서 흙·곰팡이 냄새 풍길수도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식수원인 주암호에 내려진 조류경보가 기존 순천 신평호 부근에서 주암댐 앞까지 확대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순

천시 주암면 주암댐 인근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주암호에서 조류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4년만이다.

조류경보는 관심, 경계, 대발생 단계로 나뉘며 이중 관심 단계는 물을 2회 연속 채취했을 때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mL 당 1000세포, 1만세포 미만인

경우에 발령된다. 조류가 과다 성장하면 녹조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 조류가 냄새물질과 독소(마이크로시스틴, 아나톡신, 사시톡신 등)를 생성해 수돗물의 맛을 떨어뜨리고 물에서 흙냄새나 곰팡이 냄새를 풍길 수 있다. 주암댐 앞에서 조류를 측정해 결과 지난달 18·25일에 각각 mL당 1575세포, 1510세포가 기록됐다. 환경청은 최근 연이은 폭염과 집중강우의 영향으로 조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용 산 지 점 062)526-0222~3 | 유 등 지 점 062)512-1984~5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
| 치 평 지 점 062)381-8212~3 | 동 립 지 점 062)513-8521~3 | 동 운 지 점 062)528-2640~2   |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
| 쌍 촌 지 점 062)381-655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배 들 지 점 062)381-1971~2   |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
| 화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